

## SIGNS #2 보이지 않을 때의 믿음

### ■ 본문

왕하 5:9-14

### ■ 시작 찬송가

39, 86, 263장  
(통 39, 86, 197장)

### ■ 헌금 찬송가

135, 357, 545장  
(통 133, 397, 344장)

### ▶ 믿음

- 1)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  
는 자가 되자  
(막 5:36)
- 2) 기도하고는 그대로 믿자  
(막 11:24)
- 3) 믿음을 더하시라고 기도하자  
(눅 17:5)
- 4)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자  
(롬 12:3)
- 5) 믿음을 배반하지 말자  
(롬 12:6)
- 6)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믿음을  
가지자  
(딤후 4:12)
- 7)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업신여  
기지 말자  
(롬 14:1)
- 8) 모든 일에 믿음으로 하자  
(롬 14:22)
- 9)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  
자답게 강건하자  
(고전 16:13, 고후 1:24)
- 10)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  
으로 하지 말자  
(고후 5:7)

우리 삶에 분명하게 ‘들어가지 마시오!’, ‘출입금지’, ‘위험’이라는 사인이 있으면 그것만 잘 분별할 줄 알아도 괜찮은데, 사인이 없는 곳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아만이 보지 못했던 세 가지 사인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히 11: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 나아만이 보지 못했던 세 가지 사인

#### 1. '환영과 환대'의 사인

나아만 시리아라는 국가의 군대장관. 당시 한 나라의 군대장관이라는 말은 나라에서 No.2, No.3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 게다가 시리아는 강력한 힘을 가졌던 국가. 당시 이스라엘 왕 여호람(요람)의 아버지가 아합(이세벨). 아합이 시리아와의 전쟁에 나갔다가 죽임을 당함. 나아만이 병이 낫고자 해서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스라엘은 두려웠던 것임. 여호람 왕은 분명히 트집을 잡아서 치려한다는 생각에 두려워서 옷을 찢었다고 표현. 그렇게 크고 존귀한 자가 바로 나아만.

왕하 5:1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니 나병환자더라

왕하 5:8 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말과 병거를 데리고 엘리사 집에 와서 서있습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나아만 장군을 하찮게 대했습니다. 직접 가지도 않았고, 자기의 사환(사자)을 보내서 이래라, 저래라 했습니다. 나아만은 '내가 누구인데, 내가 어떠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인데 그렇게 하다니'라는 굉장히 분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왕하 5:9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왕하 5:11a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나아만이 귀한 것은 환영과 환대를 받지 못하고 분하고 불쾌했지만 그 가운데 끝까지 순종하여 질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환영과 환대가 없는 곳에서 속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곳에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제레미 린 대만계 미국인. 동양계 선수가 갖는 수많은 비하와 멸시와 천대의 경험을 당한 사람. 공부의 명문대 하버드 출신. 하버드 선수가 NBA 선수가 될 가능성은 거의 0%. 선수들의 운동능력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에서 가드 중에서 제일 빠른 선수. 하지만 "교묘하게 빠르다"라고 표현. 가드 중 게임당 블록수가 제일 많음. 하지만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겠다"라고 표현.

우리는 다 환영받지 못하고, 다 인정받지도 못하고, 다 존중받지도 못하지만 그 곳에서도 꿈을 펼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음을 믿어야 합니다. 나아만은 환영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병이 나으려고 온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영과 환대가 없는 그곳에서 병이 낫는 길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왕하 5:14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 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환영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숙 뒤에 있는 외양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환영하는 것 같았지만 금방 달라져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환영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보혈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도 환영이 없는 곳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 2.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의 사인

우리는 내 생각과 비슷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나아만도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나아만은 시리아에서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보여주는 주술 행사를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엘리사가 최소한 그의 앞에 서서 환부를 보며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고, 무엇을 바르고, 흔들고, 이런 것이 있어야 나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작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물에 잠그라는 것입니다.

**왕하 5:1b**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게다가 요단강입니다. 수원지에 가까운 북이스라엘의 요단강은 아름다운 편이지만 사해에 가까운 남유다의 요단강은 정말 볼품없습니다. 나아만은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에 '아바나', '바르발'이라는 훌륭한 강이 있는데, 요단강이 좋은 것이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왕하 5:12**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나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기껏해야 더 좋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다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맞는 것이 최고는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전혀 낮아 보이는 것이, 전혀 가당치 않아 보이는 것이 가장 귀한 길이며, 가장 복된 길이며,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사 55:8-9**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 사 55:8-9 아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 3. '이루어짐'의 사인

여리고는 매일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마지막 7일은 일곱 바퀴를 돈 다음에 큰 소리를 지르고 나서 무너졌습니다. 하루 돌았을 때 금이 간다든지, 3일째 도니까 위에서 벽돌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징조가 있으면 돌기가 편할 텐데 마지막 7일째 일곱 바퀴를 돌 때까지도 징조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조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아만은 징조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무엇으로 일곱 번을 했습니까? '믿음으로'입니다. 보이는 것이 없어도, 변화되는 것이 없어도, 언제인지 알지 못해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 11:30** 믿음으로 칠 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러면 전에 있었던 여섯 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일곱 번을 만드는 것이 여섯 번입니다. 그것이 쌓여서 일곱 번이 되는 것이고, 그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리고를 돌면서 사람들은 불평도 하고, 의심도 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잠길 때 나아만의 마음에는 답답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바퀴 도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을 잠그는 것을 성경은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그래서 '순종'입니다. 때로는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고, 징조가 보이지 않아서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순종하며 가는 것이 참 믿음의 모습입니다.

**히 11:8**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가 의지만 갖고 있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걸음은 의지로 안 됩니다. 의지로 이스라엘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의지로 요단강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정말 낮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서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귀한 그 사랑♪

오늘의 한마디

보이지 않을 때에도 믿음으로 걸어가  
여호와 이레를 만나는 성도가 됩시다!

공동  
기도  
제목

1.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대통령, 안보, 통일 등)
2. 교회를 위해서(교회와 속한 기관 및 봉사자, 교역자, 선교사 등)
3. 해외선교지를 위해서(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 등)
4. 국내선교와 기관선교를 위해서(안동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등)
5. 교회 안의 이웃을 위해서(군입대자, 해외유학생, 환자 등)
6. 세상의 이웃을 위해서(탈북민, 이주노동자, 미혼모, 소년소녀가장 등)

- 11) 믿음에 굳게 서서 소망에 서 흔들리지 말자 (골 1:23)
- 12)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딤후 6:12)
- 13)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자 (딤후 4:7)
- 14) 듣고도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자 (막 16:11, 13)
- 15)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자 (히 11:33-34, 38)

### ▶ 순종

#### 1. 성도가 순종해야 할 대상

- 1) 하나님 (신 13:4)
- 2) 여호와의 말씀 (신 28:2, 30:2, 8)
- 3) 지도자 (신 34:9, 히 13:17)
- 4) 그리스도 (요 3:36)
- 5) 부모 (엡 6:1)
- 6) 진리 (벧전 1:22)
- 7) 주의 명령과 경계하신 말씀 (느 9:34, 신 30:8)
- 8) 복음 (롬 10:16)

#### 2. 순종토록 하는 방법

- 1) 믿음 (롬 1:5)
- 2) 말씀 (롬 16:26)
- 3) 고난 (히 5:8)
- 4) 굳어지지 아니하는 마음 (롬 10:21, 행 19:9)